

# 여름 눈 앞... 해변 코로나 감염 무방비

함덕해수욕장 '복적복적' 거리두기 실종 사례 많아 버스킹 관람객 '다닥다닥' 주민 "코로나 심상찮는데 방역수칙 등 안 지켜 걱정"



지난 9일 오후 6시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붙어앉은 채 드림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강민성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해변의 경우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일 늦은 오후 함덕해수욕장에는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대부분은 5인 미만으로 구성돼 2m 이상 거리를 두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5인 이상인데다 거리두기마저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와 함께 도로와 인접한 해변가엔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보는 수십여명의 관광객들은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밀착해 관람하고 있었다. 아울러 서우봉 인근 텐트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곳곳에서 지인들끼리 온 것으로 보이는 8명 이상의 다수가 한 텐트에 앉아 음식을 나눠먹는 등 거리두기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또한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알리는 현수막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지역민들은 코로나가 확산될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거리두기 수칙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함덕해수욕장 인근을 매일 운동한다는 A(29)씨는 "함덕해수욕장이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너무 자주 보여 눈살이 찌푸려지곤 한다"며 "요즘 제주도의 확진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확진자가 더 증가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캠핑을 자주 다닌다는 B(32)씨는 "모임, 지인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자주 보여 캠핑족으로서 화날 때가 종종 있다"며 "캠핑장을 보면 방역수칙에 대해 제대로 홍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

속 강화 등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 관계자와 협조해 버스킹 시 관광객들이 거리를 두고 관람할 수 있게 계도 조치하겠다"며 "캠핑장의 경우 거리두기 수칙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첩해 알리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캠핑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방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제주대 재학생 6명 확진  
인문대학 건물 임시 폐쇄  
11~24일 비대면 수업 전환

## 코로나 확산세에 교육계 '초긴장' 5월 들어 학생 9명 확진... 도내 16개교 원격수업 시행중

제주대 재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다. 제주대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오후 6시 현재 제주대 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인문대 3개 학과 5명, 자연대 1개 학과 1명이다. 재학생 확진자 발생에 제주대는 인문대 1호관과 2호관 건물을 임시 폐쇄했다. 제주대와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과 중 대면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관련 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해당 인원은 81명에 이른다. 진성희기자

5월 들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원격수업 전환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현상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제주교육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확산세에 일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원격수업 조치 및 연장 여부 협의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이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일이 발생하자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강화된 생활방역 수칙을 각급학교에 파급, 강조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

르면 이날 기준 16개교(유치원 4, 초 4, 중 1, 고 7)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라 전체 또는 학년별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이날 들어 제주중앙고, 오현고, 제주중앙여고 등 3개교에서 학생 확진자 총 9명이 발생했다. 초등학교는 삼성초(전체 학년), 일도초(3~6학년), 표선초(1~2학년), 한천초(전체 학년) 등 4곳, 중학교는 제주여중(전체 학년) 1곳, 고등학교는 제주중앙고(전체), 오현고(전체), 제주중앙여고(전체), 제주여상고(전체), 제주외고(전체), 영주고(1학년), 표선고(1학년) 등 7

곳이다. 이 중 제주중앙고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1학년은 오는 21일까지 2주간, 2·3학년은 오는 14일까지 1주간 원격수업으로 운영된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학 이후 현재까지(10일 오전 9시 기준) 학교 확진자(국제학교 제외)는 누적 총 23명(학생 19명, 교직원 4명)이다. 3월 10명(학생 8명, 교직원 2명), 4월 4명(학생 2명, 교직원 2명), 5월 9명(학생)이 발생했다. 또 이 기간 누적 자가격리자는 총 776명(학생 679명, 교직원 97명)로 집계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적치물' 간주"

도, 계도·홍보... 단속 강화 법적 근거 없어 수거는 한계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상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적치물'로 간주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적치물로 규정해 행정 차원에서 수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 행정에서의 자체적인 수거 등은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업체에 연락을 취해 장치를 이동시키는 등의 방식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이다. 도는 특히 보도·횡단보도·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허용 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와 행정시·경찰청·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 "남원을 의귀천 하천 정비사업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나무와 바위 훼손 확인"



의귀천 공사 현장. 사진=환경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남원을 의귀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제주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하천정비나 대형 저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의귀천 정비사업 방식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주 하천이 가진 생태·지질·경관적 가치는 무시되고 토건 공법에 의존한 하천정비가 주를 이뤄왔다"며 "의귀천은 현재 상류서부터 하류인 테헤란 바닷가까지 8km에 걸쳐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나무와 바위가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당국은 정비공사의 근거를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협소해 집중 호우 시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 하지만 이는 원인을 너무 단순화한 것"이라며 "침수피해는 지표면에 대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고, 물길이 왜곡돼 모든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면서 예전보다 물이 많아져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이름갤러리

## 개관기념 및 가정의달 맞이 소장전

한성훈 - 천지창조



김기창 - 응시	엄혜란 - 물고기 노는 달항아리 우주의 기운을 품다	김선희 - 당신이 오늘 꽃이예요.	김점선 - 꽃과 말
			

기간: 2021. 05. 05 ~ 06. 13    장소: 이름갤러리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umgallery.com    문의: 010-9882-8119

초대의 말씀 | 현시대의 감정과 문화를 현대미술작품으로 표현해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제주지역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발견하고, 보존하며,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소중한 고건 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담 이희숙 관장 올림

주요전시작품 | 김기창 - '응시' 김선희 - '당신이 오늘 꽃이예요' 김점선 - '꽃과 말' 등 엄혜란 - '물고기 노는 달항아리 우주의 기운을 품다' 천경자 -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판화 등 최예태 - '붉은 산의 한타지' 등 한성훈 - '천지창조'

이름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